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김혜정

세종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임영자

目次

I. 서론	2. 해체주의 건축의 형태구성
II. 건축양식과 복식양식의 유사성	3. 해체주의 건축의 무의식의 반영
III.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 경향	V. 해체주의 건축의 형태구성에 따른 패션
1. 탈구조주의의 정의	1. 해체주의 패션의 경향과 특징
2. 해체주의적 경향	2. 해체주의 건축의 형태구성과 패션
IV. 해체주의 건축	참고문헌
1. 해체주의 건축이론	ABSTRACT

I. 서론

복식은 조형예술인 플라스틱 아트(plastic art)로서 존재하면서 여타 영역과 상호교류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미술영역에서 복식을 미술의 오브제(objet)로 도입하여 작자나 비평가, 관람자들의 의사소통의 수단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건축적 요소가 복식의 예술적 표현의 장(場)으로 존재함으로써 복식이 건축을 비롯한 예술분야와 통합적 조형양식으로 동시대의 사상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일련의 디자이너들이 발표하는 패션쇼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본인은 선행논문¹⁾을 통하여 이미 복식의 조형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해체주의 복식과 건축의 조형적 관련성에 대해 고찰한 바 있으며 계속적으로 시도되는 해체주의 패션 경

향은 전위적 디자이너들에 의해 행해지는 외형적 요소로서의 해체패션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되는 의미적 재해석으로서의 해체 패션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에 패션을 건축의 형태구성에 있어서의 외형적 측면으로서의 해체경향과 내재된 측면으로서의 해체경향을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 건축의 논리의 기반이 된 탈구조주의의 이론 중 구조언어학을 반박하여 탈구조주의의 체계를 세운 데리다(Jaques Derrida)의 이론과 구조주의에서 탈구조주의에로의 철학적 인식체계의 변화를 배경으로 건축에 수용되면서 나타나는 구성체계를 미학적 대상으로 검증하고, 해체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건축유형을 복식에 도입함으로써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과 경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건축양식과 복식양식의 유사성

서구에서는 복식과 건축을 예술의 한 분야로 인식하여 예술가들과 건축가들의 일대기를 특색으로 삼아왔으며 훌륭한 건축가들의 기초는 가구와 복식 디자인을 혼련할 때만이 이루어진다고 보아²⁾ 타 예술과의 관련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복식과 건축을 인간행위의 소산으로 인식하여³⁾ 기술, 도덕, 관습, 신념, 가치, 사회구조 등과 논의되어지며 이런 요소들은 예술형태를 발전시킬 자연환경과 복식을 창조하는 추진력에 기여하여 건축가, 회화작가, 조각가, 작곡가, 작가, 시인과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까지 영향을 준다⁴⁾ 하였다. 또한 V. Fischer는 디자인 분야를 결정짓는 양식상의 접근을 통해서만이 건축, 회화, 복식과 같은 다른 시각적 분야를 알 수 있으며 대개의 디자인된 오브제들은 그것들만의 분명한 고유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오브제들과 공유하고 있는 어떤 형상들을 보여준다고⁵⁾ 하였다.

윌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제이콥슨(Jacobson), 아르네(Arne),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찰스 젡크스(Charls Jencks)는 건축가이면서 실내가구나 공예디자인, 제품 등의 상업디자인 활동을 하며 영역을 넘나들면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였다. 또한 패션디자이너 지안프랑코 페페(Gianfranco Ferrè)는 건축학을 옷의 구조디자인에 응용하였으며 로메오 질리(Romeo Gigli)는 건축적 조형능력을 난해한 재단에 적용시켜 새로운 신체비율을 창조하였다. 이렇듯 건축학적 배경은 타 예술과의 상호 관련 속에 존재되어지며 조형적 대상으로서의 패션의 통찰력을 기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식과 건축의 경우 사회공동체에서 가장 바람직한 요소인 태도와 취미가 결합되어 표현되며⁶⁾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심미적 요소로서 뿐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한 비용효과를 높이는 공간으로 인

식되기도 한다.⁷⁾ 이러한 현상은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97~98 A/W 오프 꾸뛰르 콜렉션에서 프랑스 혁명당시 사형수를 수용했던 파리재판소 부속 감옥이던 라공시에르즈리를 행사장으로 이용한 것이나 버려진 공장터를 집시촌으로 꾸며 패션 퍼포먼스를 연출한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파리 콜렉션에서 그 일면을 읽을 수 있다.

III.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의 경향

1. 탈구조주의의 정의

해체주의는 단일한 사상체계가 아니라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여러 현상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체론의 대표적 인물인 J. Derrida는 구조주의의 비평방법으로 소쉬르(F. de Saussure)의 언어적 개념에 비판을 가하였다. 소쉬르의 언어적 기호로서의 시니피앙(signifiant, signifier, 記票)과 시니피에(signifié, signified, 記意)의 존재방식에 있어 J. Derrida는 기표나 기의의 관계에 있어 의미가 기호안에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⁸⁾ 이것은 로고스 중심주의와 현재 바로 앞에 존재하는 것을 본질적 의미에 가장 근접한 모습으로 그 자신을 표상한다는 현전의 형이상학⁹⁾을 부정하는 것이다.

J. Derrida의 사상은 차연, 상호텍스트성, 산포, 보체로 대별된다. 차연(différance)은 공간적 차이에 시간의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공간적 개념의 차이는 언어와 그것이 재현하고자 하는 것과의 차이이며 시간적 개념의 지연은 언어가 재현하려는 현존의 끝없는 유보를 의미한다.¹⁰⁾ 상호텍스트성은 의미산출의 구조가 직조처럼 이질적인 것들이 얽혀 있거나 세계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텍스트에서는 하나의 원천적인 중심개념이 있을 수 없다¹¹⁾는 것으로 끊임 없는 인용과정으로 인식하였다. 그 외에도 산포(dissémination)와 보체의 개념

이 있는데 산포를 씨앗이 없는 쪽정어의 씨가 무한대로 퍼져나가는 현상 또는 정자 없는 정액의 무한한 방출로서 시간화의 차연으로 의미가 무한대로 확대, 팽창되어¹²⁾ 어떤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가지 단어 구성의 일부분으로서 텍스트의 여기저기에 뿌려진다는 것¹³⁾을 의미한다. 보체(supplément)는 보충과 대체의 의미대립을 상징하여 모든 개념의 대립구조에 있어 양자가 서로 첨가, 대치됨으로써 서로의 실체성을 보존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개념으로 이는 차연과 구별없이 '현전/부재'의 유희의 지평을 열었다.¹⁴⁾

그 외에도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받아 언어와 무의식적 체계를 연결시킨 J. Lacan의 이론이 있다. J. Lacan은 무의식의 세계와 꿈의 작업(dream work)은 기표의 범칙을 따른다고 주장하면서 현대 정신분석학을 태동시켰다.¹⁵⁾ 즉 F. de Saussure의 언어적 기호의 두요소인 시니피앙(signifiant, 記票)과 시니피에(signifié, 記意)에 기초하여 시니피앙이 다른 시니피에의 주체를 표상하여¹⁶⁾ 말해지거나 들려지는 소리와 쓰여지는 기호로써 시니피앙은 존재되어지고 시니피에는 무의식적 개념을 뜻함으로써 J. Derrida에 의해 비판되거나 이용되었다.

2. 해체주의적 경향

진정한 해체주의는 모더니즘이 전위적인 추진력을 상실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이 득세한 70년대 후반으로 프랑스에서 일기 시작한 탈구조주의의 과학적 맥락과 미국의 예술적 현상이 혼용되면서 탈구조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이 성립되었다. J. Derrida의 영향을 받은 비평, 시, 소설, 건축, 회화, 조각들은 J. Derrida의 사고를 인용하고 변환시키고 선언한 사상과 관련있으며 한편으로는 정신분석학과 구조주의를 포함한 관념과 관념체계의 상호관련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¹⁷⁾

20세기 후반들어 장르의 확산의 개념은 정보나 이미지, 상품을 반영한 설치와 오브제, 사진과 비디오, 매체 등의 형식으로 '작품'이라기 보다는 '선언'이나 '발언'의 성격을 띄고 있어 대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평가들은 다양한 매체의 이용으로써 새로운 사조를 이끌어 냈다고 주장하였으며 해체주의적 경향으로 상품 소비사회와 대중성을 가미하거나 사회의 해체적 문화경향, 여성, 제 3세계, 소수민족의 문제, 정치적 내용 등을 다루었다.¹⁸⁾ 또한 일련의 현대미술은 건축, 조경, 사적지 안에 현대미술을 통합시키는 작업으로 건축을 환경공학적 요소로 충족시키고 있다. 디자인에 있어서도 보다 실험적이고 공예적 품격이 강조되는 '새 디자인(new design)'¹⁹⁾으로 1970년대 이후 진행되어 왔던 모던 디자인의 '좋은 형태(good form)'라는 개념에 대해 해체와 재평가의 과정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 등에서 보이는 각 디자인 스타일은 사실상 일관된 설명을 부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체의 개념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IV. 해체주의의 건축

1. 해체주의의 건축이론

J. Derrida의 해체와 건축적 사고와의 관계를 구체화시킨 건축적인 사고는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 차연(différance), 부정성의 원리(dis와 de) 등으로 기존의 정의와 개념을 해체하고 형상적 언어로 전환하고 있다.

해체주의 건축의 형성 배경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 하나는 네덜란드의 건축가 그룹인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의 리더격인 렘 쿨하스(Rem Koolhaas)가 러시아 구성주의 건축형태를 인용해 서구에 다시 부활시킨 신구성주의(Neo Constructivism)의 개념에서의 해체주

의 건축²⁰⁾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건축개념이나 프로세스에 난해한 J. Derrida의 해체주의 이론을 도입하여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과 베르나르도 투미(B. Tschumi) 등이 건축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라는 주장이 그것이다.²¹⁾ 그 이후 1988년의 영국의 런던 테이트 갤러리(London Tate Gallery)의 '건축에 있어서의 해체'라는 심포지움에서 해체에 관한 '예술과 디자인(art & design)'과 건축디자인 등의 예술전반에 걸친 논의가 있었고²²⁾ 그해 6월에는 MOMA(The Museum of Modern Art,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구성적 해체주의 건축이라는 전시회가 열린 이후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소위 건축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포스트모던 건축 이후로 가장 주목받는 건축경향이 되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건축공간을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와의 관계를 해체주의 건축 방식으로 보아 B. Tschumi는 "헬스클럽과 철도역, 옥상에는 골프장이 함께 존재하는 동경의 백화점과 철도역을 박물관으로 개조한 오르세 뮤지엄(d'Orsay Musée), 미국의 교회를 나이트클럽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형태와 기능의 특별한 상호가능성과 모더니즘의 전통적 인과관계의 상실을 의미한다"²³⁾함으로써 건축을 외형적 파괴로서만이 아니라 의미적 해석으로 추상성과 철학적 인식으로 건축을 논의하였다.

2. 해체주의 건축의 형태구성

1)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건축은 서로 다른 상황의 건물, 혹은 음악, 철학, 생물, 회화 등의 타 영역과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형태와 기능, 공간과 행위, 구조와 의미 사이의 명확한 개념은 분열되고 충돌로 전이됨²⁴⁾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해체적 구성이나 표현상의 비정형성, 하이테크를 바탕으로 하는 소재의 공통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차연과 흔적(différance & trace)

차연(différance)은 공간적 개념인 차이의 의미와 시간적 개념인 지연의 의미를 함께 내포한다는 것으로 차연의 개념을 통해 모든 불변의 의미는 제거되어짐을 뜻하므로 건축은 각각의 의미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다. 그리하여 표현되어지는 형태에서도 다양하고 자유스러운 형태나 때론 형태의 유희로 나타났다.²⁵⁾

해체주의 건축가들은 흔적(trace)에 의한 불연속적인 접근을 주장하였다.²⁶⁾ 이는 아이젠만에 의해 발굴행위라 칭해졌으며 즉, 역사는 불연속적으로 나타내는 사건들의 흔적들의 집합체이며 동일한 공간에 발생한 사건들을 기억의 단편으로서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²⁷⁾

3) DIS와 DE의 작업화

Dis와 De의 작업화는 건축의 표현적 효과를 높이고자 부분 탈락, 부식, 과장, 확대, 과장 축소의 시각적 왜곡으로, 디자인의 원리로는 분열, 분해, 탈중심, 전위, 변위, 분산²⁸⁾ 등으로 설명되며 (1)탈구성적 표현(decomposition), (2)탈중심성, 탈중력성의 표현(decentring), (3)불연속적 표현(decontinuity), (4)이접적 표현(disjunction) 등이 있다.

탈구성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분석적 도구이며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의 상호관계가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져 의도적으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²⁹⁾ 따라서 탈구성의 개념은 통일성, 전체성을 만들어 내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체 이론과 공유되는 점이다. 또한 수직, 수평성으로부터의 탈피로써 중력작용의 왜곡을 위해 축의 방향성과 다른 것으로 기존의 중력에 순응하는 형태, 공간 경험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³⁰⁾ 탈중심이나 탈구성의 표현이 있다. 그 외에도 행위와 시간이 주는 연속성과 변화를 규정하는 틀의 개념은 해체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은 연속적인 개념 속에 내포된 일체성을 배제하고 재구성의 과정을 통한 동질적인

들의 혼합, 중첩, 왜곡, 반복, 삽입으로 분류되어지는³¹⁾ 불연속적 표현이 있다. 또한 건축의 구성형식의 전이와 역전 등을 내포하며 재질간의 혼합적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리, 분열의 상태를 의미하는 이접적 표현³²⁾이 있다.

3. 해체주의 건축의 무의식의 반영

현대 해체론적 사유의 줄기는 S. Freud의 정신분석학의 무의식과 관련한다.³³⁾ 이는 S. Freud의 정신분석학을 계승하여 언어와 무의식을 비교한 J. Lacan의 정신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인간의 무의식은 남근(phallus)을 향하고 있어 남근이라는 초월적 기표는 모든 기의들의 기표라고 주장³⁴⁾함으로써 주체문제에 있어 인간의 이성이 아닌 무의식과 타자에 있음을 전지하여 정신의 해방을 추구하였다. 또한 해체주의적 사고체계의 이성적 주체관이나 이성 중심주의 붕괴는 S. Freud의 정신분석학에 기초하여 억압되었던 꿈이나 광기 등의 발굴을 추진해왔던 초현실주의의 세계관과 동일한 맥락으로 존재한다.³⁵⁾

건축에 있어서는 초현실주의적인 기법을 차용하거나 기억의 흔적이나 공상적 유추 등의 무의식을 표현한 건축 등으로 표현되어 해체주의 건축에서는 프로그램적 난폭함으로 휴머니즘적, 전통에 대한 반발로 건축의 한계상황을 인식하면서 나타났으며³⁶⁾ 초현실적 표현의 건축적 전환은 명성, 기원, 타자의 문제로 불안정과 실험시대의 축소된 모습을 띄고 있다.³⁷⁾

V. 해체주의 건축의 형태구성에 따른 패션

1. 해체주의 패션의 경향과 특징

패션의 세계는 변화의 수레바퀴로서 패션의 개념의 재해석과 복식의 잠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며 복식으로서의 규준은 패션 아티스트들이 새

로운 방법으로 제작하고 숙고하여 기본적 구성으로 의복이 형성되는 방법, 소재를 다루는 방법과 생리학 및 심리학적 요소까지도 분석하고 논의함으로써 변화, 발전되고 있다. 글자 그대로 예술가들은 의복을 분리하기 시작하여 재구성하거나 해체하였다. 소재를 찢거나 더럽히거나 구김을 주기도 하였다. 언더웨어가 겉옷으로 입혀졌고 그런지 룩(grunge look)과 험령한 형태로 재창조되어져 새로운 방식으로 감싸지거나 입혀지면서 재구성되고 해체되었다.³⁸⁾ 또한 빛을 엷게 하고 구멍을 뚫은 스톤워싱진(stone washing jean)과 같이 옷의 안감을 없애거나 옷을 깎는 일이 행해졌다.³⁹⁾

패션에 있어서 해체주의 용어는 1989년 「디테일즈(details)」 잡지에서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이 처음 다루었으며 해체패션이 패션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것은 1989년 10월 파리에서 마틴 마지엘라(Martin Margiela)에 의해 소개된 '1990년을 위한 쇼'⁴⁰⁾라는 주장과 리처드 마틴(Richard Martin)과 해로드 코다(Harod Koda)는 해체를 1980년대 초반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의 작품⁴¹⁾으로 보고 있는 두가지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줄리엣 애쉬(Juliet Ash)는 1990년대의 세계 디자인에 명백히 파괴의 충격이 도사리고 있었다면서 비엔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작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로메오 질리(Romeo Gigli)의 뉴욕에서 보여준 1990년 콜렉션은 소비적이고 도회적인 패션의 '승리자들(victims)'이 틀러나고 대신에 다운타운의 예술세계로 대치된 것을 목격하였다⁴²⁾고 하여 해체패션을 시각적 파괴로서만이 아니라 의미의 재해석으로 해체패션을 파악하였다.

1990년대의 패션은 디자인 요소로서 해체와 쇠퇴의 모델을 찾고 있다. 현실의 권위주의적 획일성을 해체시키는 강렬한 미적 비판정신을 내포한 해체패션은 R. Kawakubo와 같은 일본디자이너의 입체성

을 무시하는 평면성과 평범하지 않는 특이성으로 서구 패션계에 폭평을 받는 면도 있으나 기존의 디자인에 파격과 새로운 신체비율의 해석을 촉발시켰으며 Jean Paul Gaultier와 Vivienne Westwood와 같은 유럽의 기존의 디자이너들은 외형적 측면에서 파격을 가져오기 보다는 이성/감성, 남성/여성, 정신/육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하는 의미적 해석으로써 디자인에 파격을 가져왔다. Martin Magiela와 Romeo Gigli 등의 새롭게 부상되는 유럽의 2세대 디자이너들은 분석적이고 구조주의적인 합리화의 우회적 표현으로 봉제구성상의 부정형성과 안감과 봉제기법의 표면화로 해체패션을 유도하였다.

2. 해체주의 건축의 형태구성과 패션

1) 건축의 형태구성으로서의 내재적 해체주의 패션

(1) 상호텍스트성으로서의 패션

① 성의 혼합

성의 혼합요소로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교차로의 성초월(trans-sexism)을 의미하는 교차의복(transvestite)적 형태와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표출한 듀얼리즘(dualism)으로써 젠더리스 룩(genderless look)의 형태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성의 혼란으로서의 양성 패션의 표본인 몸에 맞는 캣 수트나 유니타드는 신체지향적인 의상으로, 쿠레쥬(Courrège)와 루디 게른라히(Rudi Gernreich)에 의해 처음 만들어져 1969년 유행하였다가 1980년에 화려한 재기를 하여 1990년에 걸옷으로서의 속옷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새틴이나 모피, 가죽과 고무와 같은 소재나 색채로써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반박함을 의미한다(사진 1).

② 민족주의

Martin Margiela는 1990년 파리 컬렉션을 위해

파리 피를리공원(Jardin des Tuileries)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캣워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벽이 허물어져가는 슬럼가로 작업장을 옮겼으며 그것은 에스닉 스타일(ethnic style)과 해체주의자들의 패션이 랩 음악(rap music)이 있는 '제 3세계'에서의 만남을 도출하는 것이었다.⁴³⁾ 이러한 제 3세계⁴⁴⁾ 요소들은 서구중심의 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그 예로서 아프리카의 예술은 서구인들에게 흥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최근에는 인류학과 인종학에 자극을 받아 종합예술로서 가면, 의복, 춤, 그리외제의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⁴⁵⁾(사진 2).

(2) 차연으로서의 패션

차연으로서의 패션은 유희의 효과로 철학적 계몽주의의 치유책으로써 신비적 환영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중첩, 투시, 빛, 그림자, 반사, 흡수 등의 시각을 통해 공간적 표면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대체는 사진기법을 이용하여 환영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테크니칼하면서 미래주의적 소재인 스틸과 전등을 사용하면서 움직임에 따라 첨가되는 음향으로 이미지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강렬한 문양에 대한 흥미는 외부에서 얻어지는 연상작용과 관련하여 환영적 인체의 파편화와 공간적 시간적 초월을 보여주기도 한다(사진3).

(3) DIS와 DE의 불연속적 표현

불연속적 표현은 기존질서에 대한 틀의 해방으로써 기억에 대한 내적 관련성을 포함하며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dépaysement)⁴⁶⁾기법과 관련한다. 내적 관련성으로서의 불연속적 표현은 불편이나 항구성과 같은 의미를 제거하고 어떠한 의미로부터 자유롭고도 초월적 현상을 내포할 뿐 아니라 공간적 대체로써 환영적이면서 형태의 유희를 보여주고 있다. 두가지 이상의 다른 차원에 속하는 사물들이 병존하면서 논리적 모순관계에도 불구하고 상호 침투하여 공간을 3차원과 4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이것은 푸코(Jaques Foucault)가 말한 다시점(panopticon)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잠재된 욕망이나 환상을 불러 일으켜 가상에 대한 철학적 가치를 견지하고 있다(사진 4).

2) 건축의 형태구성으로서의 외형적 해체주의

(1) 상호텍스트성으로서의 패션

① 소재의 상호텍스트성

소재의 상호텍스트성으로는 이질적 소재의 혼용으로 플라스틱(plastic)으로 코팅된 폴리에스터(polyester), 니트 루렉스 양(Knit lurex yarn)소재, 고무(rubber), 비닐(vinyl), 유리 스틸(glass steel), 콘돔(condom), 폴리 우레탄(polyurethane fiber)의 혼합적 양상을 띄고 있으며 논 워븐(non woven)된 콤팩트(compact)조직의 3차원의 원단과 옵티칼 패턴(optical pattern)들이 미래적 소재와 결합하여 패션의 특징적 요소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기술적 또는 과학적 발달이 복식디자인 요소들의 감정적 효과나 형태의 구성요소와 관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사진 5).

② 믹싱모드

어떠한 고정화된 스타일을 고집하기 보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꾸뜨르와 거리패션이 혼재하여 나타나거나 동시에 하위패션이 캣워크(cat walk)로서 대체되는 현상 이외에도 꾸뜨르와 패티쉬간의 모드의 혼합으로 극단적 반대급부를 궁극에는 하나로 통하게 하는 상호텍스트성으로 믹싱모드가 문화적 관계의 산물임을 반영하고 있다(사진 6).

③ 타영역간의 상호텍스트성

현대미술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순환개념은 각 장르간의 상호영향과 관계를 의미하며⁴⁷⁾ 이는 예술계의 영역이 패션트렌드의 영감을 준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패션의 테마전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96년의 플로렌스에서 열렸던 예술 & 패션 비엔날레행사(Art & Fashion Biennale).

소호(Soho)의 구겐하임 화랑(Guggenheim Gallery)에서 열렸던 일련의 전시 등으로 지금이 1920년대 이후 어느때 보다는 패션과 예술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⁴⁸⁾(사진 7).

(2) 혼적으로서의 패션

패션에 있어서 당대에 숭상받는 어떤 것에 대해 아이러니한 관점을 취하기도 하며 옛 전통에 취하는 인용과 자신에게 취하는 인용은 부정확하고 괴이하며 우스꽝스러운 영향을 취하기도 한다.⁴⁹⁾ 이것은 역사성으로 어떠한 공간에 시간적 거리를 넘어 공간적으로 존재함을 말하며 동일한 공간에서 기억의 단편으로 나타내는 행위로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개체로서 가치의 무경계성, 문화의 무경계성 등의 다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패러디(parody), 패스티쉬(pastiche), 알레고리(allegory)가 있다(사진 8).

(3) DIS와 DE로서의 패션

① 탈구성적 표현으로서의 패션

20세기 후반의 전제조건은 완전함을 폐쇄시키고 완성된 의복으로부터 만든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그에 반발하는 파괴하는데 대한 부정적 태도 사이의 불명료함이 내포된 것⁵⁰⁾으로 봉제구성의 부정형성으로 안감이나 봉제기법의 표면화로 나타났다. 신진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된 안감과 봉제기법의 표면화는 찢어지거나 해지는 등의 비구조적 형태로서가 아니라 분석적이며 구조주의적이며 합리화의 우회로 나타났다(사진 9).

② 탈중력적 표현으로서의 패션

복식에 있어서 빛은 삼차원적 형태의 특성을 강조하여 인체의 오목함과 볼록함, 복식의 드레이프(drape), 개더(gather), 주름 또는 다양한 재질로부터 밝음 또는 어두움을 창출하여 입체적으로 보이게 한다.⁵¹⁾ 따라서 탈중력적 형태구성은 선과 공간의 형태와 방향의 느낌이 수직적 구조와는 반대되

는 은유적 표현으로 인체형의 무시, 왜곡, 모호함, 기존의 복식형태의 역방향, 기하학적 단순성 등의 유동적 실루엣의 형태로 표현되며 이는 합리성의 거부, 탈이성적 표현으로써 임의성을 띄고 있다(사

진 10).

③ 탈중심적 표현으로서의 패션

탈중심성은 구성상의 변형을 통한 왜곡과 과장으로 시각적 착시를 유발시켜 휘감기, 두르기, 매기,

<표 1> 해체주의 건축의 형태구성으로서의 건축과 패션의 상관관계

건축의 형태구성	건축의 형태구성에 따른 특징	건축의 형태구성으로서의 해체주의 패션				기법			
		형태구분 의미	건축의 형태구성으로서의 내제적 해체주의 패션	구분 의미	건축의 형태구성으로서의 의학적 해체주의 패션				
상호텍스트성	문화·음악·철학 외의 생활비행, 등리영역간의 의의 관계로서 형태의 다양화 건축물의 형태의 공간위주의 재현으로서 병치와 축적, 풀라주	선의 혼합	성의 초월로서 교차의복적 형태, 양상의 복합적으로 표현한 뉴얼리즘으로서 세 더리스 룩	소재의 혼란	이질적 소재의 혼용, 테크놀로지의 추구	· 초현실주의적 기법 · 푸코의 다관찰자의 시점 · 데리다의 교차대구법			
차연·혼재	무의미와 유의미로서 다양하고 자유스런 형태 혼재와 발굴 등으로서의 맥락의 단절	미족주의	다원적 민족주의 소외된 하위그룹의 부상	미상 모드 타영역과의 상호텍스트성	꾸뜨르와 거리패션이 혼재, 하위패션이 캣워크로의 대체 미술, 가구, 건축 등과의 교류				
DIS·DE	내적관련성으로 공간이나 시간이 주는 연속성의 해체, 사건의 기억내포 반구성과 전위로서 목적론의 해체	D I S · D E	차연	철학적 계몽주의의 치유책, 신비적 환영주의, 우연적 효과, 공간과 시간의 차연	혼재적		혼성모방 기법, 풀리쥬, 몽타주 기법을 응용한 역사적 재해석	사 유 체 제	
						탈구성			봉재구성상의 부정형성, 인감과 봉재기법의 표면화
						탈중력성			바이어스 커딩, 인체 무시, 중심의 부재의 시각적 파편화, 기하학적 단순성
						탈중심성			두르기, 묶기, 매기 레이어드 룩, 길게 흐르는 뉴닉스타일
						불연속적 표현			풀라쥬, 데리다의 교차대구법, 초현실주의적 유희
이질적 표현	속옷과 겉옷의 병치, 도치, 대치								

걸치기 등 다양한 베이어링의 비구조적인 실루엣으로 전위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인식되어 실험적 의복으로 인식하기에 수월하며 인체무시로서 구성의 형식에 새로운 프로포션과 변형으로써 관념의 초월을 나타낸다(사진 11).

④ 외적 관련성으로서의 불연속적 표현의 패션 불연속적 표현으로서의 중첩은 패션에 있어서는 코오디네이션의 구성상 아이템으로서의 부속품들이 주된 의복으로 또는 주 아이템이 상호치환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Jaques Derrida의 교차대구법(chiasmus)⁵²⁾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초현실주의 기법의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의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잠재된 욕망이나 환상을 불러 일으켜 가상 세계에 대해 철학적 견지를 갖게 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경험적 이미지나 대중적 보편성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뒤얽음, 낯설음, 유머가 함께 존재하여 나타난다(사진 12).

⑤ 이접적 표현으로서의 패션

패션에 있어서의 Dis와 De의 이접적 표현은 전통적 구성방법에 변화를 주어 신체와 의복간의 공간적 분할의 불확정적 미를 이루는 것으로 의복의 완전성으로 부터의 해체를 보여주고 있다. 인체를 구속하거나 인식하는 콜셋(corset), 페티코트(petticoat), 란제리룩(lingerie look) 등을 응용한 현대패션은 육체와 정신의 유기적 관련이 있는 페티쉬즘(fetishism)의 20세기적 해석으로 속옷의 걸음화에 대한 현대패션으로의 적용형태와 표현방법은 디자인마다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사진13).

VI. 결 론

해체주의 경향은 근간의 모든 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 공예, 회화에 수용되어 디자인 경향에 커다란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건축과 패션은 공간적 요소와 함께 형태, 질감, 재료, 색채 등의 의장으로서의 공통성을 지니며, 건축과 패션의 양식적 측면에서 보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모더

니즘적 양식을 반박하여 형태와 기능을 별개로 인식함으로써 기능적이지만 기능적으로 보일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이나 패션의 형식이나 구성에 있어 공통적으로 전위나 몰형식과 비구조화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외형적 구조로서만이 아니라 인식론이나 내재론적 측면에서도 이성적 주체관, 현전의 형이상학, 이분법적 사고의 붕괴 등의 해체적 사유요건을 가지며 이러한 해체주의적 사고관은 초현실주의의 사고체계와 동일한 맥락에서 출발하여 건축과 패션의 표현기법상에서도 초현실주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미와 공간이라는 현실 속에서 논리적 모순관계에도 불구하고 의미적 해석을 3차원, 4차원으로 가능케 하는 Foucault의 다관찰자 시점(panopticon)의 대상이 됨을 의미하며 또한 불확정적 세계관을 의미하는 J. Derrida의 교차대구법(chiasmus)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다.

해체주의의 경향은 여타 체계나 사조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성을 찾고자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후행연구에서는 해체주의의 철학적, 사회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사회에 새로운 이성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유관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패션을 예측하고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1) 김혜정, 해체주의 건축양식과 현대패션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3호, 1997
- 2) John A. Walker, *Design History and the History of Design*, Pluto Press, London, 1989, p.25
- 3) Eugene Raskin, *What is History*, 김창수 역, 건축이란 무엇인가, 대우출판사, 1983, p.12
- 4) Marily J. Horn ·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9, p.333
- 5)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95, p.156
- 6) Arthur A. Winters & Stanley Goodman,

- Fashion Advertising & Promotion*, Fairchild Publications, New York, 1988, p.120
- 7) Ibid., p.120
 - 8) 조성기, 구조주의 건축과 탈구조주의 건축의 구조 체계화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62.
 - 9) Madan Scarp,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p.22
 - 10) 김옥동편,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현암사, 1991, p.90
 - 11)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1993, p.11
 - 12) Jacques Derrida, 해체, 김보현 편역, 문예출판사, 1996, p.17
 - 13) 이광래 편,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89, p.382
 - 14) 퓌리 페리 알랭르노, 68사상과 현대프랑스철학, 박성창외 5인, 인간사랑, 1995, p.213
 - 15) Vincent B. Leitch, op. cit., p.2
 - 16) 이광래 편, op. cit., p.321
 - 17) John Griffiths, "Deconstruction Deconstructed", *Deconstruction*,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Inc., New York, 1986, p.93
 - 18) 박모, "포스트모더니즘의 계보와 그 정체", 가나아트, 1993, 7·8, p.84
 - 19) 정진국, "최근 시각예술의 자리매김과 가치확인", 가나아트, 1992, 11·12, p.42
 - 20) 박기철, 모더니즘과 구성주의 건축과의 비교를 통한 OMA circle 건축의 디자인 개념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1
 - 21) 조진일, "해체주의 건축의 이론적 배경과 디자인 성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12
 - 22) David Lodge, "Deconstruction: A Review of the Tate Gallery Symposium", *Deconstruction*,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Inc., New York, 1986, p.88
 - 23) Bernard Tschumi, 이벤트건축, 뉴모더니즘과 해체주의②, 청람신서, 1996, p.79
 - 24) 서윤주, "해체주의 건축의 철학적 수용과 체계 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54
 - 25) 조진일, op. cit., p.18
 - 26) 서윤주, op. cit., p.58
 - 27) Charles Jencks, "Dialogues with Peter Eisenman", *The New Moderns*, New York, Rizzoli, 1990, p.211(서윤주, op. cit., p.58 재인용)
 - 28) 서윤주, op. cit., p.59
 - 29) 이지윤,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방법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4, p.73
 - 30) 김영태, 현대건축에 있어서 탈큐빅 공간형태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p.144
 - 31) 정용교,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76
 - 32) Andreas Papadakis Ed., *Deconstruction*, Onibus Volume, Academy Editions, p.175 (이지윤, op. cit., p.9 재인용)
 - 33) Centre Georges Pompidou, op. cit., p.50
 - 34) Ibid, p.52~53
 - 35) Sarane Alexandrian, 초현실주의 미술, 이대일역, 열화당 미술신서, 1988, p.6
 - 36) 조성기, op. cit., p.107
 - 37) Centre Georges Pompidou, op., p.18
 - 38) Robyn Healy, *Coutre to chaos*,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London, 1996, p.58
 - 39) Edited by Palais du Louvre, *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 Beaux Arts, Paris, 1996, p.60
 - 40) Amy M. Spindler, "Coming Apart", *New York Times*, Sunday, July 25, 1993(김민수, 모던디자인 비평, 안그라픽스, 1995, p.175 재인용)
 - 41) Richard Martin & Harod Koda, *Infra-Apparel*,

- 이선재 역, 경춘사, 1996, p.97
- 42) Juliet Ash & Elizabeth Wilson, op. cit., p. xvii
- 43) Ibid., p.xvii
- 44) 서양의 제국주의적이며 배타적 사고로써 2차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정착된 20세기 후반의 특수용어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를 지칭하며 그 곳에는 가난하고 열등한 지역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윤범모편저, 제 3세계의 미술문화, 과학과 사상, 1990, pp.40~41 재인용)
- 45) Guy Brett, "No, Condition is Permanent", 윤범모 편저, 제 3세계의 미술 문화, 과학과 사상, 1990, p.558
- 46) 오브제의 본래 뜻에서 전용(轉用)하여 구체적 예술의 방법으로 삼아 예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물건이나 그 한 부분을 본래의 일상적인 용도에서 떼내어 대치 시킨 방법으로 상징적 장치를 이용한다.
- 47) 유선태, 현대섬유예술의 이해, 미진사, 1995, p.12
- 48) Suzy Menke, "Clothes with a Soul", *Marie Claire* (Korea), 97. 9, p.182
- 49) Anne Holander, 의복과 성, 경춘사, 1996, p.26
- 50) Richard Martin & Herold Koda, op. cit., p.97
- 51) Marian L. Davis, op. cit., p.148
- 52) 이것이고 저것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의 움직임을 말함
(John Llewelyn, Derrida on the threshold of Sense, 김세중 역, 데리다의 해체주의, 문학과 지성사, 1992, p.98 참고)

ABSTRACT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Modern Architectural Form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al Fashion

Fashion as the form construction of deconstructivistic architecture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e intrinsic aspect and the formal aspect through an introduction of these three characteristic architectural principles into fashion. Intrinsic deconstructivistic fashion as the construction of architectural form has had the mixture of genders both in a form of transvestic and in a form of genderless look as dualism, and can be characterized by pluralistic nationalism with the emergence of the Third World alienated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so forth. Difference and the prefixes of dis- and de- are schizophrenic mystic illusionism, chance effect and the difference of space and time and is supporting Jacques Derrida's chiasmus that is the perspective of collage in painting and the multiple observation point as the play of borrowing the surrealist technique.

The formal construction of deconstructivistic fashions the construction of architectural form has intertextuality material, hybridization of items and the blending of modes and another sphere. Trace as icon deconstruction attains historical analysis. Dis and de in fashion are showing the retrogression of gravity through decomposition, discontinuity and disjunction emerge nonstructural silhouette, juxtaposition, inversion and replacement of underwear and outer garments. Their decentering expression emerged as construction through mixture and repetition as well as overlapping of planes or spaces. And their disjunctive representation appeared in the form of mutual juxtaposition and substitution with the double-side of formal construction in functional terms.



〈사진 1〉 Pearl, The Phallic Woman(1994), Fetish, 1996



〈사진 2〉 Isabel Marant Modain, Autumn 1997



〈사진 3〉 Paco Raban, 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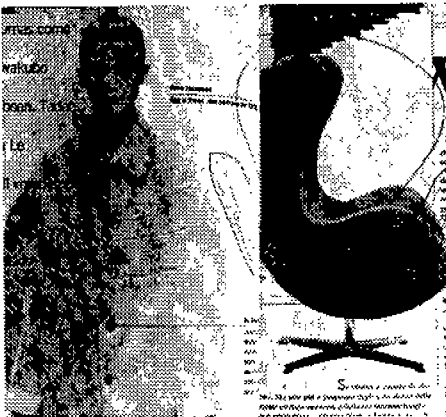
〈사진 4〉 Vogue(Italy), 1995. 7



〈사진 5〉 Hussein Chalayan, 1995 S/S Victoria and Albert Museum Poster C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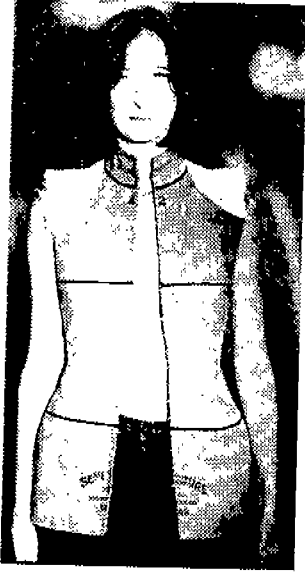
〈사진 6〉 Vivienne Westwood (1994), Fetish,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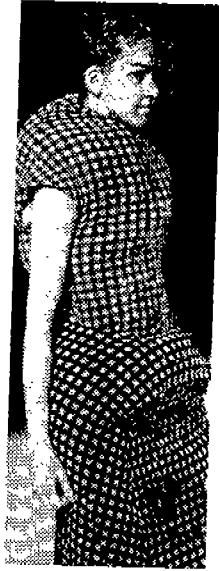
〈사진 7〉 Rei Kawakubo, Arne Jacobson(1952), Vogue(Italy), 199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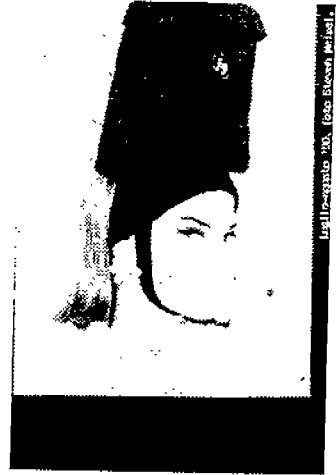
〈사진 8〉 Vivienne Westwood, Couture to Chaos,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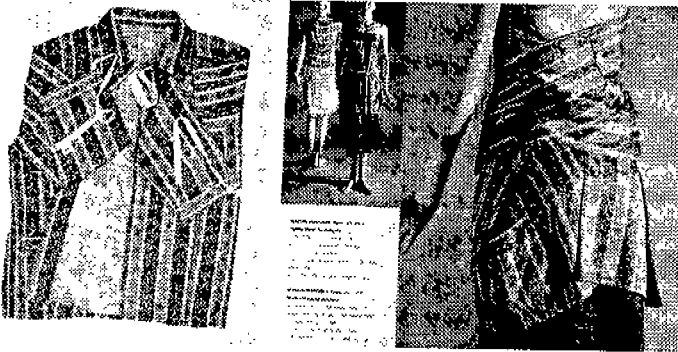
〈사진 9〉 Martin Magiella,
Vogue(Korea), 1997. 7



〈사진 10〉 Rei Kawakubo,
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 1996



〈사진 12〉 Vogue(Italy), 1994. 10



〈사진 11〉 Martin Magiella, Couture to Chaos, 1996



〈사진 13〉 M. Chandoha Valentino,
Fetish, 1996